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4.28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 속 실적에 주목하며 혼조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부각되며 하락 전환하는 등 방향성이 부재. 그러나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MS(+4.81%) 등 일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자 재차 상승하며 실적 발표에 주목하는 등 종목 차별화 장세 진행. 장 마감 앞두고 국채 금리가 상품가격 상승 우려 속 급등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으로 재차 매물 출회되며 1% 넘게 상승하던 나스닥이 하락 전환(다우 +0.19%, 나스닥 -0.01%, S&P500 +0.21%, 러셀2000 -0.34%)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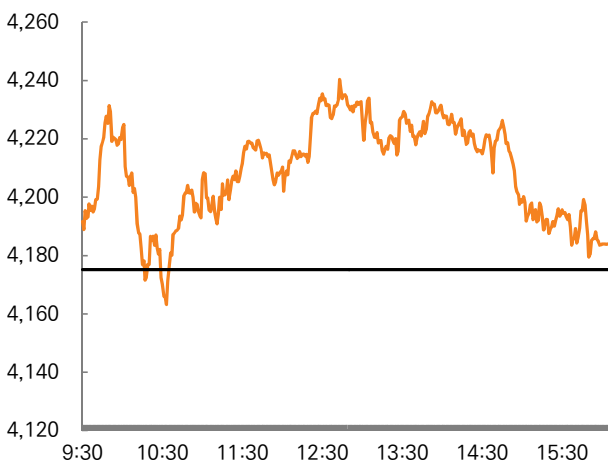
• MS(+4.81%)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조정으로 급등. 이에 힘입어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 서비스나우(+2.26%)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견고한 결과를 내놓자 시간 외로 7% 상승 중. 비자(+6.47%)는 여행 지출 증가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해 여행, 항공, 호텔 업종 상승을 견인. 한편, 메타플랫폼(-3.32%)이 알파벳(-3.67%) 실적 발표로 하락 했으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일간 활성 유저수 증가 소식에 15% 급등. 페이팔(-1.30%), 포드(+0.48%), 퀄컴(+1.20%) 등도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로 2~5% 내외 상승 중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11% MSCI 신흥 지수 ETF는 1.1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6.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2%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최근 하락 요인들을 뒤로하고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춰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여기에 장 마감 후 메타플랫폼,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 급등 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결국 한국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 기대 및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감안 개별 종목군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물론 반등세가 확대되기에는 여전히 달러/원 환율이 1,265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 약세 기조로 인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달러/원 환율이 안정을 찾는지 여부에 따라 변화가 예상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39.06	-1.10	상해종합	2,958.28	+2.49
KOSDAQ	896.18	-1.64	홍콩항생	19,946.36	+0.06
DOW	33,301.93	+0.19	베트남	1,353.77	+0.93
NASDAQ	12,488.93	-0.01	유로스톡스 50	3,734.64	+0.36
S&P 500	4,183.96	+0.21	영국	7,425.61	+0.53
캐나다	20,744.23	+0.26	독일	13,793.94	+0.27
일본	26,386.63	-1.17	프랑스	6,445.26	+0.4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실적 시즌에 주목하기 시작 ②반발 매수 유입

연초 이후 미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①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②중국 섀도우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이번 주 들어서 연준 이슈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 영향이 크지 않음. 이보다 중국 섀도우에 따른 경기 둔화 이슈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물론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이 또한 단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연속성은 크지 않음. 더 나아가 최근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개선돼 많은 부분이 선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

그런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자 시장은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결과에 따라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MS(+4.81%)가 급등하자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비자(+6.47%)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의 영향이 없었으며 경제 재개로 인한 여행 지출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며 급등. 이로 인해 카드사는 물론 여행, 레저, 항공, 자동차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세

물론 알파벳(-3.67%)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메타플랫폼(-3.32%)이 하락했고, 비대면 관련주 일부도 부진. 결국 시장은 최근 하락 요인 보다는 본격화 되는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맞춰 종목 차별화가 진행 중. 이런 가운데 현재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들 중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주식시장이 실적에 주목할 경우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한편, 이날 발표된 State Street Investor Confidence Index 즉 기관 투자자 신뢰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지표는 기관 투자자의 실제 매매 패턴을 분석하여 투자자의 신뢰 또는 위험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 많은 경우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위험자산이 많을 경우 100을 상회해 위험 선호도 또는 자신감도 높다는 점을 알림

이 지표는 올해 2월 한 때 기준선인 100을 넘기도 했으나 3월에 99.5로 기준선을 하회한 이후 4월에는 92.9로 전월 대비 6.6pt 하락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북미지역의 경우 8.0p 하락한 95.2로 발표 되었으며 유럽은 6.7p 하락한 76.2로 발표. 반면, 아시아는 2.4p 상승한 92.0을 기록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에서 이탈 했음을 알 수 있음. 그렇지만,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그동안 하락에 따른 일부 반발 매수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



메타 플랫폼 시간 외 15% 급등

MS(+4.81%)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 조정으로 급등. 이에 힘입어 세일즈포스(+2.70%), 서비스나우(+2.26%) 등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 서비스나우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견고한 결과를 내놓자 시간 외로 7% 상승 중. 비자(+6.47%)는 여행 지출 증가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마스터카드(+5.07%)도 동반 상승. 이에 힘입어 부킹닷컴(+4.58%) 등 여행, 델타항공(+2.89%) 등 항공주, 힐튼(+3.52%) 등 호텔 업종 등도 동반 상승. 엑슨모빌(+2.86%)은 주당 0.88달러 현금 배당을 발표하자 상승. 코노코필립스(+1.91%) 등 에너지 업종도 동반 상승. 이는 실적 호전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 상품 거래소인 CME(+5.94%)는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 인페이즈 에너지(+7.72%)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반면, 알파벳(-3.67%)은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하락. 메타플랫폼(-3.32%), 넷플릭스(-4.97%) 등도 동반 하락. 메타 플랫폼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일간 활성 유저수 증가 소식에 15% 급등. 보잉(-7.53%)은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777X 항공기 생산 일시 중단 소식에 급락.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페이팔(-1.30%)은 2%대 상승.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낙관적인 가이드스를 발표한 GM(+1.63%)이 상승한 가운데 포드(+0.48%)는 시간 외로 3%, 쉘컴(+1.20%)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견고한 가이드스 발표로 5%대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46	대형 가치주 ETF (IVE)	+0.25
에너지섹터 ETF (OIH)	+0.78	중형 가치주 ETF (IWS)	+0.17
소매업체 ETF (XLY)	+0.01	소형 가치주 ETF (IWN)	-0.23
온라인소매 ETF (EBIZ)	+1.47	대형 성장주 ETF (VUG)	+0.23
금융섹터 ETF (XLF)	-0.08	중형 성장주 ETF (IWP)	-0.13
기술섹터 ETF (XLK)	+1.48	소형 성장주 ETF (IWO)	-0.5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20	배당주 ETF (DVY)	-0.03
클라우드 ETF (CLOU)	-0.10	신흥국 고배당 ETF (DEM)	+1.10
미국 리츠 ETF (VNQ)	-0.66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74
주택건설업체 ETF (XHB)	-0.16	미국 국채 ETF (IEF)	-0.56
바이오섹터 ETF (IBB)	-0.28	하이일드 ETF (JNK)	-0.47
헬스케어 ETF (XLV)	-0.22	물가연동채 ETF (TIP)	-0.16
곡물 ETF (DBA)	0.0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96
반도체 ETF (SMH)	-0.48	모멘텀 ETF (MTUM)	-0.0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9.08	+1.48	-7.22	-2.44
소재	536.34	+1.48	-5.70	-4.72
IT	2,484.58	+1.36	-5.43	-13.69
산업재	816.88	+0.35	-5.24	-7.76
필수소비재	820.98	+0.27	-2.50	+3.45
경기소비재	1,321.53	-0.07	-7.74	-12.75
금융	586.34	-0.10	-6.87	-10.81
헬스케어	1,536.24	-0.12	-6.00	-4.60
유틸리티	369.02	-0.46	-5.38	-1.76
부동산	300.82	-0.66	-4.94	-2.26
커뮤니케이션	197.69	-2.62	-9.65	-18.0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속 외환 시장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11% MSCI 신흥 지수 ETF는 1.1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66.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2%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나스닥이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패닉셀’ 조짐이 보이자 장 초반 한 때 KOSPI 기준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최근 하락이 대부분 선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더 나아가 중국 증시가 시진핑 주석의 ‘인프라 투자’ 관련 발언으로 급등 하는 등 중국 발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낙폭이 축소. 여기에 실적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힘입어 안도하는 모습을 보임. 결국 KOSPI는 1.10%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최근 하락 요인들을 뒤로하고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춰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여기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미 증시에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점 또한 긍정적. 더불어 장 마감 후 메타플랫폼, 쉐컴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 급등 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결국 한국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 기대 및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감안 개별 종목군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물론 반등세가 확대되기에는 여전히 달러/원 환율이 1,265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 약세 기조로 인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달러/원 환율이 일부 수급적인 요인으로 약세를 보인 점을 감안해도 너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크지 않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달러/원 환율이 안정을 찾는지 여부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며 BOJ 통화정책에 따른 엔화의 움직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요 경제지표
결과

여전히 부진한 미국 주택지표

미국 3월 잠정주택 판매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4.0%) 보다는 개선된 전월 대비 1.2% 하락한 103.7로 발표 되었으나 예상(mom -1.1%)은 소폭 하회해 여전히 주택 시장이 회복 되지 않음

4월 기관 투자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9.5보다 둔화된 92.9로 발표돼 기준선인 100을 하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음

미국 3월 도매 재고는 지난달 발표(mom +2.6%)를 소폭 하회한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나 예상치인 1.4%를 상회



달러화, 유로화와 엔화 약세로 강세 확대

국제유가는 EIA의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원유재고가 지난주 대비 69만 배럴 증가해 예상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가솔린 재고가 157만 배럴 감소해 관련 이슈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혼조 양상. 한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둔화 이슈도 여전히 대체로 국제유가는 방향성 없이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음.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폴란드 등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국가에 대해 공급을 차단하자 급등

달러화는 안전 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다만, 달러 인덱스 기준 103을 상회하자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상승폭 축소. 유로화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과 독일의 GfK 소비자 동향 지수(-26.5) 급락 등 유럽 경제지표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자 달러 대비 약세. 엔화는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달러 기준 128엔을 상회하는 등 약세폭이 확대

국채금리는 전일 급락 후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주식시장이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를 상회하는 등 상승폭이 좀 더 확대. 더 나아가 장 마감 앞두고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결국 상품가격 상승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단기물의 상승폭이 확대. 한편, 5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2배)을 소폭 하회한 2.41배를, 간접 입찰은 12개월 평균(61.6%)을 상회한 64.0%를 기록해 영향은 제한

금은 달러 강세 속 매물 출회되며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언급 등에 힘입어 상승. 곡물은 밀이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파종 면적이 작년보다 160만 에이커 증가(예상보다 80만 에이커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하락했으나 옥수수 등은 기후 영향으로 브라질 등 남미 지역 파종 면적 감소 가능성이 부각 되자 상승. 대두는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제품과 모든 원료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 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25% 상승 했으나 철근은 0.49%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02.02	+0.31	-0.17	Dollar Index	102.979	+0.66	+2.58
브렌트유	105.32	+0.31	-1.39	EUR/USD	1.0559	-0.74	-2.71
천연가스	7.27	+6.09	+4.76	USD/JPY	128.45	+0.96	+0.46
금	1,888.70	-0.81	-3.42	GBP/USD	1.2546	-0.22	-3.99
은	23.51	-0.36	-7.30	USD/CHF	0.9692	+0.70	+2.18
알루미늄	3,093.50	+0.95	-5.37	AUD/USD	0.7127	+0.06	-4.34
전기동	9,856.00	-0.04	-3.59	USD/CAD	1.2819	-0.05	+2.56
아연	4,219.50	+0.86	-4.49	USD/RUB	73.7695	-2.33	-10.25
옥수수	812.25	+1.34	+0.28	USD/BRL	4.9637	-0.69	+6.33
밀	1,091.25	-0.34	-0.57	USD/CNH	6.5873	-0.04	+2.21
대두	1,692.75	+1.26	-1.41	USD/KRW	1,265.20	+1.15	+2.35
커피	215.55	-2.53	-1.78	USD/KRW NDF1M	1,266.47	+0.43	+2.6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28	+10.75	-0.40	스페인	1.792	-0.50	-0.70
한국	3.187	+0.70	-11.80	포르투갈	1.845	-0.80	+0.70
일본	0.246	+0.10	-0.70	그리스	3.018	+4.00	+14.20
독일	0.801	-1.40	-5.60	이탈리아	2.572	+1.80	+6.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